

조선 중기 지식인 공론 정신 ‘현대 기술’로 담았다

‘포럼 1574 : 입석대 서곡’ 제작 현장
(㈜리얼프로텍, 17-20일 GCC서 공개
첨단 기술 공유·실감 콘텐츠 활성화

조선 중기 지식인들의 공론 정신을 첨단 XR 기술로 재해석한 다큐멘터리 ‘포럼 1574: 입석대 서곡’의 제작 현장이 일만에 공개된다.
(주)리얼프로텍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 VX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녹화를 오픈 스튜디오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는 실감형 XR 콘텐츠 제작 과정을 일반에 공개해 XR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첨단 제작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람객과 취재진은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참관할 수 있으며 녹화 공간에는 XR 기술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포럼 1574: 입석대 서곡’은 450년 전 제봉 고경명이 남긴 ‘유서석록(遊瑞石錄)’을 바탕으로 당시 무등산 유람에 나선 당대 지식인들의 사유와



(주)리얼프로텍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녹화를 오픈 스튜디오로 운영한다. 사진은 무등산 입석대를 3D로 모델링해 만든 가상 이미지.

담론을 포럼 형태로 재구성했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 평등과 공론의 가치 등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포럼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점이 특징이다.

제작에는 첨단 버추얼 프로덕션(VP) 기술이 활용된다.

무등산 입석대에 직접 올라가지 않고도 실제 입석대에서 촬영한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입석대를 정밀하게

스캔해 제작한 가상의 3D 배경이 활용되는데, 이 배경을 스튜디오에 구축된 대형 LED 스크린에 띄우고 배우가 연기를 하면 카메라 트래킹 기술을 통해 실제 입석대 앞에서 촬영한 것과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기술은 평소 접근하기 힘든 장소나 실재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연출을 가능케 하며 시간과 날씨,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촬영에서는 한국의 전통무용과 어우러



(리얼프로텍 제공)

지는 선비들의 이야기가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며 인간과 자연,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광주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진다.

전호림 리얼프로텍 대표이사는 “무등산의 정신과 광주의 민주적 토론 문화를 XR 기술과 퍼포먼스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제작지원을 통해 광주시립창극단 배우들과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민서 학생이 무용수로 참여하며 지역의 제작인력이 대거 참여해 지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더한다.

오픈 스튜디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며 일반 시민은 물론 신문과 방송, 지역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접 제작 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버추얼 콘텐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많은 시민이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콘텐츠 제작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실감 콘텐츠 제작과 스튜디오 활용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1574: 입석대 서곡’은 오는 8월 9일 KCTV광주방송과 CMB광주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주)리얼프로텍은 앞으로도 서석대와 규봉, 적벽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명소를 3D 배경으로 개발,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XR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콘진원, ‘K-컬처 뮤지엄’ 전통 융합 기획 전시 개최

주민·여행객 전면 개방...5종 미디어아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오는 9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1교통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신기술 문화 체험 공간 ‘K-컬처 뮤지엄’에서 기획전시 ‘기억의 틈, 유산을 잇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미디어 예술 작품 5종, 전통 한복, 현대 감각을 더한 예술 가구 전시 등으로 구성돼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사진>

외벽과 바깥 공간(그라운드)에는 무형문화재 장인의 작품과 하이나 작가의 미디어 예술



작품 ‘풍류’가 함께 전시됐다.

‘K-컬처 뮤지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휴관일이다.

지역 주민, 어린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모든 전시는 무료로 제공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K-컬처 스퀘어’ 공식 누리집(kculture.square.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재영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은 “‘풍류’는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멋과 흥을 담은 작품”이라며 “청주 지역의 장인과 영상작가가 협업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구현됐다”고 말했다.

이어 “풍류를 즐기던 선조들의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공예의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인과 한국의 미감과 정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은행, 일루미엘 협업 예·적금 이벤트

광주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눈치게임적금’, ‘굿스타트예금’, ‘이자먼저Wa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일루미엘(illumiel)’과의 협업을 통한 ‘눈치게임 굿스타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눈치게임적금’에 월 20만원 이상 12개월 가입 시 일루미엘 마일드 클리어 순삭 폼클렌징(단일 제품) 무료 교환권을 선착순 1만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굿스타트예금’ 또는 ‘이자먼저Wa예금’

을 3천만원 이상 12개월 가입 시 일루미엘 소프트 타이트닝 감태 크림(50ml) + 감태 세럼(30ml) 세트 무료 교환권을 선착순 3천명에게 제공한다.

이벤트 조건 충족 시 별도의 응모 없이 자동으로 참여되고 가입 익월 20일에 일루미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임채만 기자

“주민 안전 지원”...금타, 22일부터 타이어 무상점검

광주공장 화재 사과 차원 캠페인 전개

광주공장 화재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사과의 마음을 담아 또 하나의 캠페인을 준비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2일부터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광주공장 화재이후 회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 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휴가철을 맞아 주민들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광주지역 소재 타이어프로 대리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면 타이어를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총 26개소 타이어프로 대리점(▲광산점 ▲광주공형점 ▲도산점 ▲소촌점 ▲수원점 ▲첨단점 ▲첨단지구점 ▲하남점 ▲광주터미널점 ▲농성점 ▲상무점 ▲풍암점 ▲소태IC점 ▲매곡점 ▲본촌공단점 ▲북광주점 ▲북동점 ▲양산점 ▲오지점 ▲용봉IC점 ▲전남대점 ▲증흥점 ▲남구월산점 ▲백운점 ▲전월점 ▲남광주점)이 대거 참여한다.

미처 타이어를 점검하지 못하고 휴가를 떠난 시민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전문가들이 출동한다.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가평 휴게소(춘천 방향), 여주 휴게소(강릉 방향), 정안알밤 휴게소(순천 방향), 함안 휴게소(순천 방향)에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타이어를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임채만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